

Fuhr 박사, 전도서, 세션 7

© 2024 알 푸어(Al Fuhr)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잠언 서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헬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끝, 지식의 끝임을 알게 됩니다.

즉, 반드시 분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들은 하나이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잠언의 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방향,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합당한 자세, 하나님이 도구이시며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서 매일 일어나는 의사 결정에 도구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나 현명한 사람의 일부, 하나님을 향한 지향,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존경심, 이것이 현명한 의사 결정의 시작입니다.

코헬렛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속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생명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지나치게 실용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삶의 즐거움과 마찬가지로 코헬렛서의 신학과 지혜에 매우 통합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이 책의 에필로그나 결말에만 나타나는 계명이 아니라 확실히 강조되어 있지만 묵상과 다양한 문학 작품 전반에 걸쳐 통합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전도서의 요점이나 문학적 구성요소. 이번 강의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두드러진 모티브로 살펴보고, 이러한 모티브들을 전도서가 우리에게 남기는 일종의 포괄적인 메시지로 묶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코헬렛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모티브이다.

많은 독자들이 전도서를 읽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음, 이것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연결하는 매우 단순한 진술을 어느 정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단지 결론이 아니라 전도서 전체

메시지의 구성 요소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전도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전도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모티브로 한 진술 중 일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제 시간에 시를 볼 때 살펴본 것 중 하나는 인간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계산해보면, 전도서 3장과 14절에서 내가 전에 말했듯이, 인류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행하시는 이유에 대한 일종의 설명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3.14에 나오는데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압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더할 수도 없고, 빼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야레(Yare)는 히브리어로 '그를 두려워하라'입니다. 이제 이것은 인류가 불구가 되어 행동할 수 없게 되는 일종의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궁극적인 권위와 통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권위와 통제이심을 인류가 깨닫는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지향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정통 지혜와 확실히 전도서의 메시지에 매우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거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코헬렛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동기를 부여한 것은 실제로 최종 심판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이미 있었던 일과 앞으로 있을 일이 모두 이전에 있었던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일종의 책임감, 즉 결산의 날을 암시하면서 과거를 고려하실 것입니다. 16절, 또 내가 해 아래서 또 보니.

심판의 자리에는 사악함이 있었습니다. 정의가 있는 곳에는 악이 있었습니다. 즉, 법정이 있는 곳, 정의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께서 심판과 공의를 베푸셔야 할 곳에서 사악함이 도사리고 있는 사회에서 부패를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자주 그것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코헬렛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며 모든 일에 때가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으리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현재 여기에서 결정된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현재 행동하는 데는 적절한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결산의 날, 즉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헬렛은 현명한 사람으로서 현재 일어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심판은 없다고 보고 미래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3장과 17절, 특히 12장과 13절과 14절에 비추어 볼 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집단적으로가 아니라 사람 개인적으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 답변할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심판은 선지자들의 방식으로 국가를 향하여 행하거나 국가에 전달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약성서에서 내세와 죽음의 신학에 관한 한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쨌든 미래의 심판에 대한 이러한 기대에는 사람이 현재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장과 14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티브에 대한 힌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숭배를 특징으로 하는 책이 아닙니다. 즉, 희생과 구약의 율법에 의해 조직되고 요구되는 종류의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볼 수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신권이나 종교 축제 기구에 대한 언급은 실제로 찾아볼 수 없지만 이러한 종류의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자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 관한 몇 가지 진술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도 이곳에 성전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가까이 하여 들으라. 입으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어쩌면 어리석은 자의 제사를 입이 빠르고 빠른 것과 연결시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예배의 자세를 드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말씀할 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어떤 번역에서는 이를 합당한 예배 또는 올바른 예배의식으로 여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세를 취하는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게 말하고 성급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지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입으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특히 예배하는 자세로 무엇이든 성급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당신은 땅에 계십니다.

태양의 관점에서 이를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타락한 관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학과 인간의 신학, 신학적 인류학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사에 관여하시지만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그는 다릅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인식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걷는 방식으로 걷거나 발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 코헬렛의 신학에서 하나님은 단지 친구나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으니 말을 적게 하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오듯이, 말이 많으면 바보의 말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속담에서 이러한 인과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바보의 말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지체하지 말고 갚으라.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고대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 구조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할 수 있고 코헬렛이 이를 인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보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행동하거나 불경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세요. 그분은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서약을 이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초월적이지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 언제 어리석게 행동하는지 아십니다.

하나님 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빨리 이행합니다. 바보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서원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지혜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약간의 지혜가 있습니다. 당신의 입이 당신을 죄에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잠언서와 입의 말, 입의 말을 서두르는 것에 관한 많은 잠언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 사자에게 항의하지 마십시오. 내 맹세는 실수였다. 즉,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다시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너희 말을 인하여 진노하사 너희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요? 많은 꿈을 꾸고 많은 말이 헛된 것이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의 무거움 속에서도 코헬렛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함부로 말을 부풀리고 신이 단지 나중에 생각한 것처럼 행동하거나 신이 우리가 그냥 쌓일 수 있고 경건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일종의 존재인 것처럼 행동할 때, 코헬렛 그 사람이 바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즉 인간이 이 세상에서 행동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종류의 두려움 때문에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고 경건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전도서의 지혜에 있어서 매우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기에는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일종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1장과 9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관한 매우 분명한 진술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네가 젊을 때부터 기뻐하고 젊은 시절에 네 마음을 기쁘게 하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네 마음의 길을 따르라.

그래서 이것은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인생을 즐기라는 후렴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인생의 즐거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전도서에서 매우 동반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거의 정반대의 것으로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일종의 금욕주의가 아니며, 삶의 즐거움이 일종의 쾌락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 두 가지가 정말로 서로 협력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즐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냉정하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누리며 모든 즐거움과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심판에 대한 기대는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촉매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네 마음의 근심과 네 육체의 괴로움을 내버리라 청춘과 기력은 덧없느니라 너는 청년의 때 곧 환난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라. 죽음의 불가피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일종의 동기로 작용합니다. 또, 그것은 일종의 두려움에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방향과 자세입니다.

우리가 행한 행위에 대해 답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냉정하게 살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12장과 13절, 14절에서는 확실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전체 문제의 결론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책의 에필로그에서 진술이 이루어졌고 이제 모든 것이 들렸으며 여기에 문제의 결론이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삶을 즐기라는 자제를 일종의 명령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결론, 삶을 즐기라는 결론을 의미하지만 이는 다시 양면의 지혜 동전입니다. 책 끝 부분의 에필로그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의 결론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다시 한 번 필수적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전부이기 때문이라는 진술을 발견합니다. . NIV는 이것을 인간의 모든 의무로 번역합니다.

이 표현은 사실 매우 모호합니다. 이는 사람의 본분 전체, 즉 이것이 사람의 일차적 책임을 가리킬 수도 있고, 사람의 활동 전체,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과 선택에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포화시키는 것입니다. 진실은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전도서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제 일부 학자들은 문제의 결론으로서 책 끝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이 전도서의 나머지 부분에 너무 이질적이어서 나중에 나온 작품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통 편집자, 나중에 와서 이것을 텍스트에 추가하여 Kohelet의 다소 비정통적인 나머지 진술을 수정하거나 Kohelet이 정신을 차리는 책 자체 내에서 일종의 호일 또는 교정일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끝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내가 조사한 모든 것을 조사했고 여기에 약간의 어리석음이 묻어 있었고 저기에는 약간의 죄가 얼룩져 있었고 나는 어느 정도 왔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한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은, 그런 사고 방식에는 확실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나는 우리가 전도서 자체가 입증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전도서 자체에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책 앞부분에서 인생을 즐기라는

명령 중 몇 가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3장과 17절은 논쟁의 노선에 매우 많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브라케팅의 일부로 봅니다. 3장과 1절로 시작하여 3장과 17절이 나중에 삽입되었음을 단순히 암시하는 포함은 약간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5장과 1절부터 7절까지는 타락한 세상에서 신적인 존재와 필멸의 존재 사이의 분리를 인식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경외심을 인식하는 논증 노선에 매우 많이 통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와 올바른 자세에 관한 일종의 지혜 신학이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11장과 9절에서 12장과 1절로 이어지는 것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청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비교되거나 일종의 동반자로 여겨지는 청년으로서의 삶의 즐거움입니다.

코헬렛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노인이 될 때까지, 노파가 될 때까지 미루지 말고, 오늘은 죄에서 조금 벗어나면 하나님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나중에 죽기 전에, 내일이 당신에게 보장되어 있는지 당신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20대, 30대, 40대에 한 일들, 인생이 끝날 때까지 꼭 답해 주실 거예요. 그 생명은 언제 끊어질지조차 모릅니다. 코헬렛이 9장과 11절, 12절에서 말했듯이 당신은 잔인한 올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루의 끝을 모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당신이 심판의 날, 당신이 행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응답할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즉, 12장과 13절과 14절에서는 교정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책의 나머지 부분을 바로잡는 일종의 호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코헬렛의 신학과 매우 일치합니다. 사실 12장과 13절과 14절은 3장 17절, 11장과 9절, 12장과 1절과 같은 다른 구절들과 큰 유사성을 발견합니다. 임박한 심판의 시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3장 14절을 다시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심판에 대한 기대가 직후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는 사악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있는 곳에 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헬렛은 인간의 현재 경험에는 부패와 불의가 있음을 관찰합니다. 선지자들은 확실히 많은 예언적 신탁을 통해 그것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있는 불의로 인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특히 아모스서는 사회적 불의와 세상의 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세상에서 정의를 보고자 하시는 그분의 열망을 생각할 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과 관찰을 통해 현재 상황이 바로잡혀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너무 자주 봅니다.

그래서 코헬렛은 미래의 심판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동에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12장과 14절은 그 자체로 서 있는 것이 아니며 전도서에는 그것과 일치하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장과 14절에서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3장 17절이 생각나네요. 또한 12장과 1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명령이 11장과 9절의 심판에 대한 기대로 인해 촉발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게 하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장과 9절, 12장과 13절과 14절에서도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리라. 11장 9절에 네 마음의 길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리라 생각하라 심판의 포괄성과 인간이 무엇에 대해 대답할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은 11장과 12장 사이에서 함께 정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12장과 13절, 14절을 이후 판으로 삭제하려면 11장과 9절에서도 분명히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12장과 13절과 14절을 다시 반복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들렸습니다. 문제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을 경외하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이 선악 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종의 미래 심판에 대한 기대는 전도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확실히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은 전도서에는 미래의 심판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전도서가 비록 은폐되고 불확실하더라도 미래의 심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를 암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 진술을 통해 현재형이나 천국에서의 인류의 현재 경험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숨겨진 일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생을 경험한 후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일어난 후에는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읽은 내용의 봉투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이제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의 관점도 하나의 모티브로 삼는다면 일곱 가지 두드러진 모티브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아마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삶의 소중함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딜레마이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의 타락을 반영하고, 전도서를 창세기, 특히 창세기 3장으로 다시 연결합니다. 우리는 수평적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코헬렛의 생각을 너무 많이 읽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조직신학자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성경 전체에 걸쳐 갖고 있는 모든 계시 지식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역사상 이 시점에 66권의 책이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코헬렛은 당신이나 나처럼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5장의 베마좌 심판을 몰랐고, 요한계시록의 크고 흰 보좌 심판도 몰랐습니다.

Kohelet은 수평적이면서도 현명한 관점에서 사물을 봅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현명한 눈으로 사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의 수단, 즉 고대 근동 세계의 모든 지혜 현자들이 그들의 능력에 따라 가졌던 것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와 지혜의 계율을 받아들이고 그 계율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평가하는 능력에서 다른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는 이 계율을 헤벨 세계의 삶에 대한 관찰과 경험에 적용하고, 이 트론이 있는지, 헤벨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모든 것이 끝나고 남은 것이 있는지 탐구합니다. 고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락한 세계의 문제인 저주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인류의 공통된 경험인 죽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에게는 부활에 관한 계시록의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 몰랐습니다. 지혜가 문제, 딜레마, 헤벨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테이블에 가져올 수 없는 곳에서 궁극적으로 구속사에서 헤벨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코헬렛이 지혜를 통해서는 찾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나는 특히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피조물의 부패와 성도들을 기다리는 구원에 관해 말할 때 그 점을 분명히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도서의 지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도서가 할 수 없는 곳, 코헬렛이 이 트론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그는 지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지혜는 tov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더 나은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짧더라도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현명한 사람으로서 인생에서 자신의 결정에 지혜를 적용하면 정기적인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방향은 그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적시에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시대의 적절성을 아는 것은 그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지위를 인식하는 것이 그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삶의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베팅을 헤징합니다.

인생에서 위험을 감수합니다. 잠언 7장, 10장, 11장을 읽어보면 코헬렛은 매우 실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불신자라도 전도서에 나오는 속담의 지혜에 나오는 원칙과 계율을 실천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생에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들이 몇 년을 살아가면서 의사 결정과 사물의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매우 실용적입니다. 그러나 코헬렛은 이를 뛰어넘는다. 그는 또한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나 신학적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욥이 다루는 문제는 어떤 종류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토록 무감각하고 부당해 보이는 이러한 일들을 인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코헬레트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명확한 대답을 반드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욥과 마찬가지로 욥도 답을 모릅니다.

그러나 코헬렛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현명한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가 행한 행위에 대해 응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금 절주하게 사는 것.

죽음의 불가피성에 비추어 코헬렛은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현명한 사람은 지혜를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시는 은사도 인식해야 함을 인식합니다. 삶과 경험의 현재 상황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코헬렛은 현명한 사람은 모든 기회를 활용하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생을 즐길 것이라고 매우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내 인생에서도 가장 후회되는 일은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하지 못한 일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겨우 40대 중반입니다. 70대, 80대, 90대,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그 사람은 내가 한 일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후회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요. 오늘 하지 않은 일들을 다시 하거나 다시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헬렛은 현재의 경험을 장려하고, 현재의 가능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며, 동시에 결과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도록 격려하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섭리적 확률, 확률론적 기회에 대한 지혜에 대한 아이디어는 전도서 메시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삶을 최대한 살아가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차이며, 성취를 위한 기회를 찾는 것보다 단지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에서, 심지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면 지혜 동전에 대한 이러한 생각, 특히 젊은이들은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이 주신 선물로 삶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냉정하게 살며 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경하며 살 것입니다. 언젠가는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실용적이고 실용적이며 패러다임적인 지혜입니다. 이런 종류의 자료를 청소년 그룹 환경, 10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잠재적으로 인생 전체가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에게 인생은 둘 중 하나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이해한다면,

인생을 즐기기 위해 사는 것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쩌면 인생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아니, 아니. 그것은 전도서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면서 삶을 최대한 이해한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와 방향은 우리가 인생에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어느 측면에서 보든, 시작이든 끝이든, 지혜를 하나로 묶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매우 일치합니다.